

2001년 『월간양계』 선정 10대뉴스

- 홍보팀 -

1 30년만의 폭설과 한파, 계사붕괴 등 피해 심각

금년은 유난히도 예년에 비해 눈이 잦고 폭설이 많이 내린 해로 기록되었다. 대륙에서 확장된 고기압 세력이 약해져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1월 7~9일, 2월 15일 두차례에 걸쳐 폭설이 내리면서 계사 및 계분장이 무너지는가 하면 사육중인 닭들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가져왔다. 2월 15일에는 서울이 하루동안 24.3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32년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였으며, 1월 15일에는 철원지방이 영하 29.4℃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밀어닥친 혹한으로 인해 급수 탱크 동파는 물론 니플이 얼어붙는 등 급수의



어려움으로 양계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월간양계가 집계한 피해규모를 보면 1월에는 408개 농가에서 984개동의 계사가 무너져 내렸으며, 2,503,500수가 폐사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2월에는 29개동의 계사가 완파내지 반파되고 114,500수의 닭들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집계가 안된 농장을 감안할 때 피해는 이보다 더 컸으며, 정부에서는 폭설피해 농가에게 6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가 하면 재해복구 지원비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2 계란 등급제 시행 갈등 심화

금년 10월부터 시범 실시 될 것으로 알려졌던 계란등급제가 생산자 및 참여 예정 업체들의 반발로 내년 3월 이후로 또다시 연기되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팽대해지면서 지난 3월 공청회를 열고 10월부터 희망농가에 한해 시범 실시를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최종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홍보부족은 물론, 냉장유통시설 미비, 전 양계인 참여유도 실패, 등급판정 방법의 맹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월간양계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 및 관계기관은 시범 실시를 앞둔 시점인 10월 9일 생산자 및 사업참여 예정업체 등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시험 실시를 한 후, 3월부터 희망업체를 확대시켜 시범 실시를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이후 생산자들은 11월 1일 계란등급제에 대한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기존의 유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동안 공인된 1개 집하장과 1개매장으로 제한하여 시범실시 후 국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 수입가금육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검출 때문

중국으로부터 수입중인 오리육에서 지난 5월 16일 홍콩에서 검출되었던 것과 동일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일명 조류독감 : H5N1)가 검역과정에서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1년여만인 지난 6월 4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전면 수입을 금지시키고 그 동안(3월 23일 이후) 수입이 이루어져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기 출고된 가금육에 대해서는 반송 및 폐기처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돌연 정부에서는 금수조치 이후 1달도 채 안된 지난 7월 5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가금육에 한해 수입을 허용키로 하면서 본회를 비롯한 계육협회와 오리협회 등 가금관련업계에서는 국내 농가는 물론 국민의 건강까지 불모로 한 채 중국의 정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전면 중단해 줄것과 이에 따른 예방대책 등을 수립해줄 것을 골자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중국(남부 푸젠성)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더 큰 반발을 사고있어 보다 분명한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한국계육협회 생산자단체 지정 움직임 강한 반발

(사)한국계육협회는 금년 초 양계자조금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육계업을 육성·발전시킨다는 명분아래 생산자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육계사육농가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자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한국계육협회가 닭고기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주축된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육계사육농가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이익극대화에 활용하려 하는데도 정부에서 이를 간과하고 오히려 정관변경요청을 승인한데 대해 적절치 못한 부당한 조치라 언급하고 “한국계육협회는 생산자단체가 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같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본회는 전국의 회원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11월에 열린 전국육계인대회에서 300여명의 육계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계육협회의 육계생산자단체 표방을 끝까지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 확인한 바 있다.

5 농장채혈 및 ND백신 공급 지원

정부는 금년부터 가축질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산란계와 육계를 대상으로 채혈·방역실태 점검 지도 및 협조한 채혈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공급 지원에 나섰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채란농장의 경우 금년에 2,700호, 108,000수(호당 40수)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각 회마다 10~20수씩 채혈하고, 이와 별도로 AI 등 현안사항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채혈 실적은 10월 현재 62,258수로 57.7%의 달성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한편, 농림부에서 도계장(40만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채혈 실적은 10월 현재 15만수 정도로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채란, 육계 모두 계획달성은 미흡했으나, 처음 시도한 사업에 비해 높은 반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의 뉴캐슬병 근절사업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6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공급

지난 3월 가금티푸스 생균백신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수입, 시판되어 농가들에게 보급되었다. 가금티푸스는 1992년 국내에 처음 발병하여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채란농가를 중심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들이 생균백신 수입의 필요성 제기는 물론 수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바 있다. 그 동안 채란인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소부루셀라 백신 과동으로 인해 생균백신 수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예상보다 늦어진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공급계획은 지난 2000년부터 서울대학교 김선중 교수팀에 의해 9개농장을 대상으로 1차 야외시험이 이루어졌고(접종결과 57.9%~87.5%의 방어율을 보임), 같은해 10월부터 2차 보완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접종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옴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입승인을 받게 되었다.

본회는 이와 관련하여 생균백신 접종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매월 접종실적에 대해 현장방문(확인검사)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이 공급된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 발생 및 백신 접종일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7 축산자조금 제도 입법화 추진

축산업계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본회를 비롯한 축

산 생산자 단체들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축산자조금 제도 입법화 작업이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이 없을 경우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축산자조금제도 입법화 추진은 지난 11월 16일 축산자조금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본 법안의 입법화 취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회는 이와 관련하여 자조금사업이 입법화될 경우를 대비해 자조금 거출 방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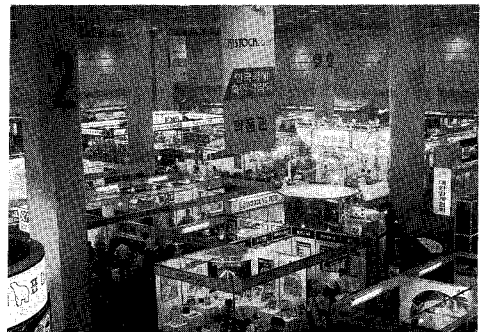
8 양계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정부에서는 양계산업 발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010년까지 총 4,188억원이 투자되는 양계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육계, 산란계, 질병, 양계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 발표된 이번 대책은 육계의 경우 병아리 품질 향상을 위해 종계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2003년 7월 닭고기 등급제 시행, 닭고기 수출산업화 전략 등을 세웠으며, 산란계의 경우 계란등급제 실시, 농협내에 '계란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란수급안정체제 구축, 계란 경매제 시범실시 등을 내놓았다. 닭질병근절대책은 국제수준에 부합되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내의 ND를 근절시키고, HACCP도입을 통한 안전양계산물을 생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병아리 생산조절과 질병관리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신고제인 종계·부화업을 허가제로 환원한다는 내용도 양계관련 제도 개선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효율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종계육성농장 지원' 등 이번 대책에서 빠진 사업들도 많아 좀더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9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후 이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우리축산」을 주제로 지난 7월 5~8일 4일간에 걸쳐 삼성동 코엑스(COEX) 1층 태평양관에서 개최된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1)가 9만여명의 참관객을 동원하면서 성황리에 끝났다. 본회가 주관단체로 행사를 추진한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163개업체 502부스(유료부스 362개 부스)가 참가해 국제대회에 손색 없이 치뤄졌으며, 전시 행사, 홍보행사, 토론회 및 세미나, 시상 및 각종 이벤트



행사가 어우러지면서 풍성한 대회로 평가받았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지난 1991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제 1회 한국양계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1997년 제 4회대회까지 격년제로 행사가 치뤄지면서 양계산업 발전을 꾀한 바 있으나 1997년말 국내에 몰아닥친 IMF로 인해 종합축산박람회로 확대, 개최되면서 올해까지 2회대회를 치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지난 11월 7일 (사)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실무업무를 인수인계함으로써 1991년 한국양계박람회부터 10년동안 6회대회의 주관단체로 실무를 맡아오면서 범축산업계 행사로 확대, 발전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0 계열주체, 닭고기 수출 등 경영다각화

금년은 국내산 신선 닭고기가 일본에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계열업체들이 자체 병아리 확보를 통한 경영다각화를 기하는 해로 기록되었다.

금년부터 한두차례의 시험수출을 시작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한 닭고기 수출은 지난 9월 5일 (주)마니커에서 일본의 4대 종합상사의 하나인 니쇼이와이 큐슈지사와 국내산 닭고기 장기수출 계약에 합의함으로써 지난 10월 10일 1차로 10톤이 수출된데 이어 주문이 쇄도하면서 금년말까지 100톤 가까이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체리부로 식품은 지난 4월 27일 부도사태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증원농장을 인수, 자체 종계장을 통한 병아리 공급 기반을 확보하면서 계열화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병아리 자체공급 뿐만 아니라 종계 분양에도 참여하면서 이 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구축해온 (주)삼화농원의 새로운 견제세력으로 부상, 상호 보완작업을 통해 건전한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였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